

국민권익위, 호남지역 부패방지 청렴 동아리 출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3일 오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광주·전남·전북지역 110여개 공공기관의 청렴 동아리 회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동아리 출범식'을 가졌다. 참석자들이 청렴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美의회, 한미FTA 압도 찬성 통과

서명후 4년3개월만에 비준 완료... 공은 한국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07년 6월 30일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 지 4년 3개월여만에 미국에서 먼저 한미 FTA 비준 절차가 끝나게 됐다. 미 의회는 이날 저녁 하원에서 먼저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 뒤 상원에서 곧바로 이행법안을 가결했다. 한미 FTA 이행법안은 하원에서는 찬성 278표, 반대 151표, 상원에서는 찬성 83표, 반대 15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Barack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즉각 이행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비준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행법안 서명으로 마무리 된다. 미 의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는 미

국을 국민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한미 FTA 이행법안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된 뒤 회기일수로 따져 6일만에 통과됐다. 이는 미·모로코 FTA와 함께 법안 제출 뒤 최단시일 내 비준동의의 기록이다. 협정 서명 후 비준까지 4년이 넘는 최장기간이 소요된 FTA가 됐지만, 이행법안이 제출된 뒤에는 초고속으로 비준이 이뤄진 셈이다. 한미 FTA는 이제 한국에서 비준 및 관련 법 제·개정 이 이뤄지고 나면 발효될 수 있게 됐다. 한미 FTA는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는 확인서한을 교환한 뒤 60일이 경과한 후 발효된다. 그러나 양국이 별도로 발효일을 합의할 수도 있다. 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미 FTA가 발

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10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5.66% 늘고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FTA는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17년만에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또 NAFTA 이후 체결한 9개 FTA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백악관은 FTA 이행법안 의회 처리에 앞서 의회에 보내 정책성명을 통해 "행정부는 한미 FTA 이행법안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이 협정에 따라 예상되는 수출 증가는 7만개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與 “조속 처리를” 野 “신중 기해야”

여야정 협의체, 한미FTA 논의... 난항 예고

미국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통과로 여야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 막판 의견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와는 별개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에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통상절차법 제정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보는 것도 있어 막판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가 비준한 만큼 빠른 시일내 처리하자”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민주당은 “10+2 재협상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0+2 관련 협상안을 도출해 되도록 빠른 시간에 여야 합의로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급적 오늘 결실을 봐야 국익에 손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진표 원내대표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10+2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을 이 시간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늦더라도 미국의 이해를 구해 골목시장·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관련법 제정을 한·미 FTA 비준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4개월 전에 제시한 10+2 재협상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며 “미국이 처리했으니 처리해 달라”는 것은 황당하고 말이 안 된다”며 “미국이 했다고 불과 10~20일 만에 처리한다는 것은 후손과 국익에 큰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우리 국회의 경

우 FTA 비준안 외에 후속 법안 14건이 다른 상임위에 걸쳐 있으므로 미국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촉박하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유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한 농업보안대책 13개 중 수출할 부분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10+2에 있어서도 전통상인대화 자금, 나눔가게 경쟁력 강화 등은 충분히 긍정적인 만큼 머리를 맞대면 좋을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며 유연성을 보였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교통일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으로서 야당의 요구 중 수용 못할 부분이 많았다”면서 “첫 논의를 시작한 만큼 앞으로 피해대책 마련과 함께 10+2 재협상안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李대통령 美 펜타곤 방문... 오바마와 정상회담

미국을 국민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국방부(펜타곤)를 방문, 미군 수뇌부로부터 한반도 정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도 워싱턴 D.C 외곽에 있는 펜타곤을 찾아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 마틴 Dempsey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미군 수뇌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정세와 대비태세 등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했다. 한국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외국 정상이 펜타곤 내 심장부인 ‘탱크룸’에서 미 합참의장으로부터 안보 정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것도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탱크룸은 미 합참의장이 전

시에 각 군으로부터 전시상황을 보고 받고 작전지시를 하는 곳이다. Dempsey 미 합참의장은 이 대통령에게 북한 정세와 대비태세를 브리핑하면서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떤 상황이 와도 확실히 준비하고 대처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이 대통령이 격려했다고 김태호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Barack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간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

“청탁은 하지도 받지도 말자”

공직사회 내부 자정 다짐... 전국서 세번째 광주, 전남·북 110개 기관 ‘결의문’ 채택 전남경찰청·무안공항 우수 사례 선정도

광주·전남·전북 110여 개 공공기관에 청렴 동아리가 출범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3일 오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광주·전남·전북지역 110여 개 공공기관의 청렴 동아리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동아리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발대식은 ‘부산저축은행 사태’,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가 잇달아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 내부의 자정이 필요하다는 위기 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발대식은 지난 7월 서울·경기지역과 9월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세 번째이다. 발대식에 참가한 청렴 동아리 회원들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자부

심과 긍지를 가지고,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청탁은 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경조사 수수금액 기준을 준수한다. ▲승진·전보 시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등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렴 동아리 우수 사례도 소개됐다. 동아리 회보와 소식지를 발간하고 소외 이웃에게 봉사한 전남지방경찰청과 청렴 퀴즈 풀기와 청렴 골든벨)과 청렴 UCC 제작, 대학생 청렴 홍보단과 청렴 캠페인을 벌인 한국공항공사(무안·군산 공항) 등이 우수 사례 동아리로 꼽혔다. 이밖에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청렴 꽃씨 나눠주기와 청렴 서명받기를 하고 버려야 할 문화 10가지(형식주의·무사안

일, 음주 등)와 높여야 할 문화 10가지(청렴·청렴·봉사 등)를 정해 실천한 관세청 소속 서울세관 청렴 동아리의 활동도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발대식에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김의환 부패방지 국장은 인사말에서 “보다 많은 공공기관에 청렴 동아리가 생기고 청렴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광주지역 공공기관 간부 대상 청렴 협의회와 광주시교육청 간부 대상 청렴 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한편, 권익위는 공공기관 중간 간부들의 청렴 마인드 제고와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계의 윤리경영과 인연의 청렴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청렴 동아리 구성을 확산하는 한편 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11년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성공을 기원합니다

Advertisement for the 2011 F1 International Automobile Rac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race track with a Formula 1 car in the foreground. At the top right, there is a photo of a smiling woman and a man. Below the main image, there is contact information for '아이엘리시아' (AIELISIA) and '유스퀘어사우나' (YUSQUEER SAUNA). The text includes phone numbers and addresses in Gwangju.